

The background is a colorful cartoon illustration. On the left, King Saul is depicted with a black beard and a blue headband, looking down with a somber expression. In the center, a young David is shown wearing a yellow crown and a yellow and white striped tunic, holding a large grey shield. On the right, another man with a black beard and a blue headband, likely Jonathan, is shown holding a large sword. The scene is set against a light blue sky and a brown ground.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렙바이블 대본집

Ep.051

왕이 된 사울

(사무엘상 9:26~11:15)

날이 밝았어요.
사울은 하인과 함께 부지런히 떠날 준비를 마쳤고
사무엘은 그들을 배웅해주었어요.

사울과 하인이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하인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내 당신에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테니.”

그렇게 하인이 먼저 출발하고 나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당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에게서
구해내야 할 것이요.”**

얼떨떨해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믿기 어려울테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세 가지 증거를 미리 알려주겠소.”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자세히 일러주었어요.
과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왕이라니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집으로 향하면서도 사울은 좀처럼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터덜터덜... 발걸음에도 힘이 없었죠.**

**바로 그 때, 어떤 처음보는 두 사람이
사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이보세요.
거 집에 빨리 가봐야겠던데요?
당신의 아버님께서, 당신이 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오.”**

**“맞아요! 아 그리고, 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헤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한 것도 놀라웠지만 사무엘이 말해준
첫 번째 증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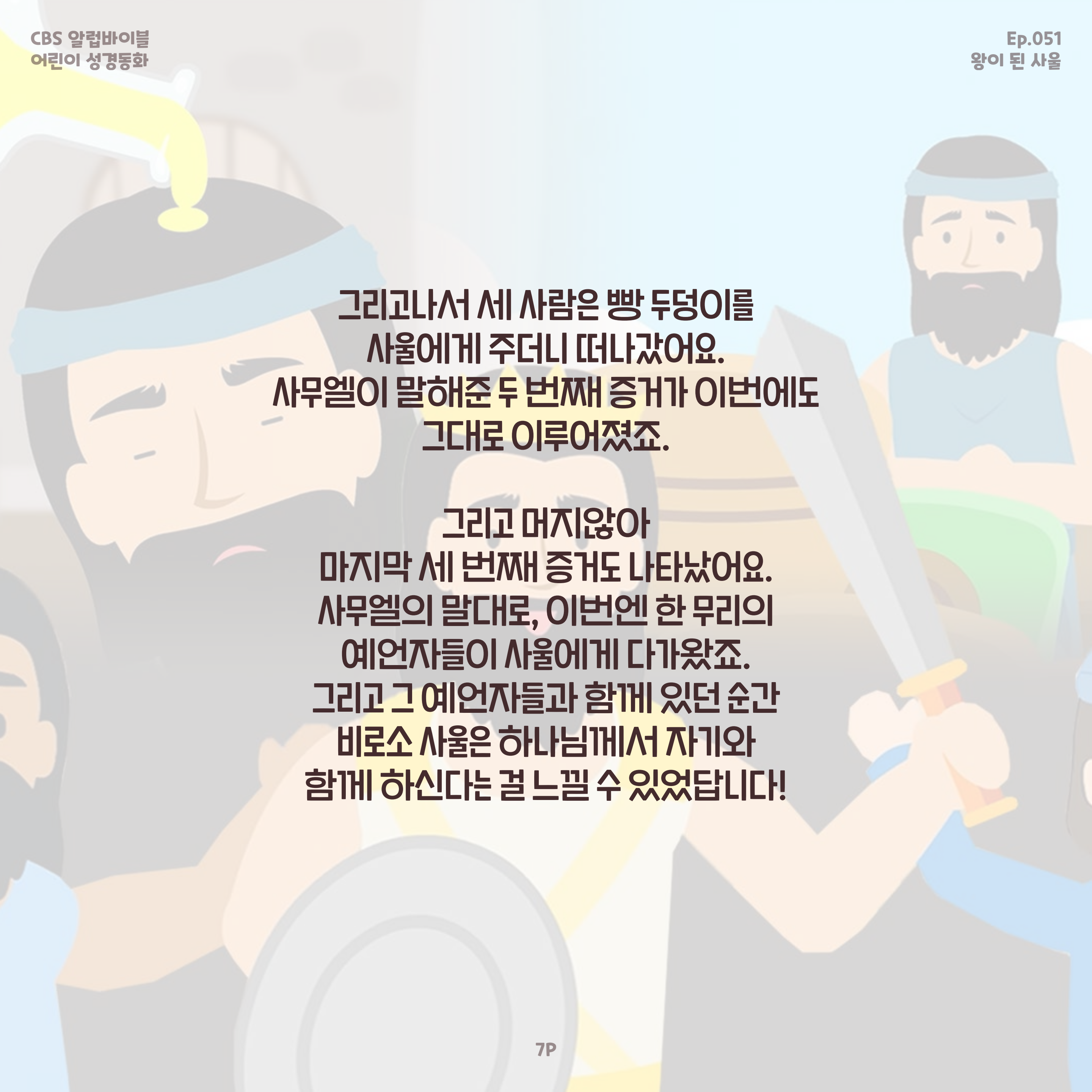
그리고 얼마쯤 더 갔을까?
이번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헤.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끼 염소들을 끌고 가고 있구요”

“저는 보시다시피 빵을 들고가고 있어요!”

“히히히 그리고 제가 매고 있는 이 가죽부대에는
포도주가 들어 있습니다! 히히히!”

A stylized illustration of King Saul and Samuel. King Saul, on the right, has a long grey beard and wears a blue headband and a blue tunic. He holds a large sword with a yellow hilt. Samuel, on the left, has dark hair and wears a blue headband and a dark tunic. He is pouring oil from a yellow vessel onto Saul's head.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a yellow sun or moon.

그리고나서 세 사람은 빵 두덩이를
사울에게 주더니 떠나갔어요.
사무엘이 말해준 두 번째 증거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머지않아
마지막 세 번째 증거도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말대로, 이번엔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울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그 예언자들과 함께 있던 순간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며칠 후,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자 사무엘이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였다.
자, 너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니
다들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나뉘어 서거라.”

사람들이 열두 지파로 나뉘어서 또 그 안에서도
가문별로 나뉘어서 서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알려주셨어요.

가장 작은 베냐민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가족
그 중에서도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이 누구야? 우리의 왕이 될 분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사울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나머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보다 못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쭙봤어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여기 와 있습니까?”

“사울이 저기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구나.”

그제야 사람들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막상 사울이 사람들 가운데에 서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환호했어요!

**“이야. 거, 인물 한 번 좋으시구만!
아주 현철하시니,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으시겠는데?”**

**“저 준수한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뇨!
왕 만세! 왕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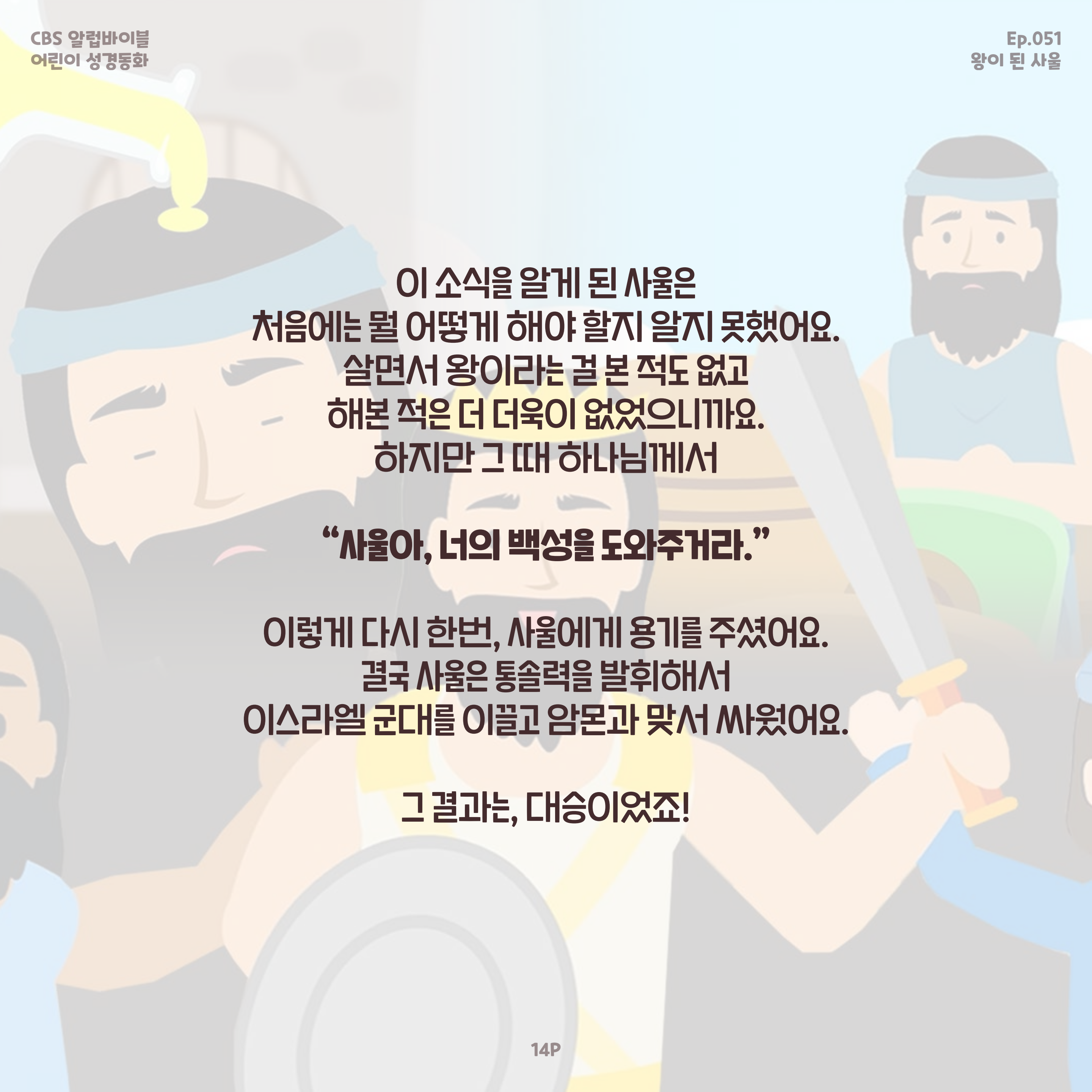
**그렇게 사울은 서른 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흥! 나귀나 돌보고 소나 몰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말야.
저런 사람이 우릴 적에게서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야?”**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죠.
하지만 사울이 모두의 인정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당시 ‘야베스’라는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어찌나 잔인했는지
한 번은, 평화 조약을 맺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몬의 왕이 이렇게 말했죠.

“평화 조약? 으허허. 좋다! 까짓거 맺어주마.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조약을 맺기 전에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먼저 뽑아갈 것이다.
어떻느냐? 그래도 조약을 맺고 싶느냐?
으하하하하하.”



이 소식을 알게 된 사울은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살면서 왕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은 더 더욱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의 백성을 도와주거라.”

이렇게 다시 한번, 사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결국 사울은 통솔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맞서 싸웠어요.

그 결과는, 대승이었죠!

사울은 암몬의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쳤고
이젠 사울을 마워하던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에 확신도 없고 부끄러워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사울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잡아주셨어요.

사울 왕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